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2.2(금) ~ 2024.2.8(목)

제공일시 2023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2.2(금) ~ 2024.2.8(목)

제공일시 2024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대규모 농민 시위에 결국... EU, 농업분야 '탄소배출' 감축목표 삭제

- 유럽 각국에서 농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자, 유럽연합(EU)이 결국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짐
-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관리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탄소 배출량 감축 로드맵에서 2040년까지 메탄·질소 등 농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기로 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보도함
-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EU 전체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FT가 입수한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당초 EU 집행위는 농업을 2040년 배출 감축 계획의 핵심 분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짐
- 더불어, 초안에는 이를 위해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비료 화학성분을 바꾸며, 소비자가 덜 탄소 집약적인 식품을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등 농업만이 아니라 식품 부문 전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 하지만 EU 집행위는 최근 프랑스·독일·벨기에·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자, 반발을 우려해 농업 분야의 배출 감축 목표를 제외한 것으로 보임

(헤럴드경제 2024.2.6) 손미정 기자

2.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의회 가결만 남았다

- EU 27개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합의함.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AI 규제법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고 밝힘
- 이제 유럽의회 가결만 남음. 오는 13일 유럽의회 담당 위원회 표결을 거쳐 3월이나 4월께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임. 법안은 올해 여름 이전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본격 시행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오는 2026년부터로 예상됨.
- AI 규제법은 지난해 12월 초 EU 입법 절차상 가장 중요한 이사회·집행위·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을 통과했음. 이번 27개국 표결은 형식 절차임

(전자신문 2024.2.4) 류태웅 기자

3. 독일, 수소 전환 목적의 가스발전소에 보조금 23조원 제공

- 독일 정부는 5일(현지시간) 수소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스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기 위해 160억유로(약 23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함
- 이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도기적 투자로 가스화력 발전을 사용하다가 2035년에서 2040년 사이 100% 수소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임. 독일 정부는 2032년에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기로 밝혔음
- 발전소는 최대 10기가와트(GW) 한도로 4건의 단기 입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약 15~20개의 신규 발전소에 해당한다고 블룸버그는 5일 전함
- 독일의 발전업계는 이번 투자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임. 반면, 독일의 환경단체 8곳은 이 계획이 “탄소중립 달성을 상당히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함

(인팍트온 2024.2.6) 송준호 기자

1. 표준협회, EU 탄소국경 조정제도 전환기간 검증 실시

- 한국표준협회는 7개 철강 품목의 제품 탄소 배출량에 대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전환기간 검증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
- EU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를 탄소 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으로 정했음. EU는 전환기간 동안 검증기관이 EU로 수입되는 CBAM 대상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한국표준협회는 현재 한 철강기업에 대해 CBAM 이행규정 요구사항에 따른 전환기간의 1차 CBAM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 중이기도 함
-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은 “이번 검증은 국내 기업의 탄소 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으로, CBAM 본 제도 시행 후에도 검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스마트경제 2024.2.5) 권희진 기자

2. 항공사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해야... 허위 보고 시 제재도

- 앞으로 항공사들은 연간 탄소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함. 탄소 배출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됨
-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통과됨. 이번 입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 준수 차원에서 이뤄짐. 현재 자발적 이행 단계인 CORSIA는 오는 2027년부터 의무화됨
- 이번엔 마련된 국제항공 탄소법에 따르면, 최대 이륙중량이 5.7t 이상인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t 이상일 경우 이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이행 의무자’로 지정됨
-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항공사가 ‘이행 의무자’에 포함됨

(연합뉴스 2024.2.5) 이승연 기자

3. 금융위, 인구구조·기후 변화 TF 출범

- 금융위원회가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인구구조와 기후, 기술 관련 변화가 금융 부문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연구함
- 이는 ‘2024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정한 방침으로, 금융발전심의회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위의 정책 자문기구임
- 올 한 해 인구·기후·기술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운영해 이 세 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함

(한국경제 2024.2.7) 최한준 기자

4. 정부 “선순환 자본시장 구축... 관련 정책 지속”

- 금융당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 올해도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
-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추가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기로 함
- 금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방향으로 제시함
-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도 추진됨. 금융위는 올해 추가적인 상법 개정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과제로 삼고 있음.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도 내걸음

(노컷뉴스 2024.2.6) 박초롱 기자

1. ‘공급망 다변화’ 대만 TSMC, 2공장 올해 착공

-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일본에 제2공장을 짓기로 함.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TSMC와 반도체 재기를 노리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대만과 일본의 공조가 강화되는 모양새임
- 6일(현지시각) TSMC는 2027년 말까지 일본 제2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사의 일본 내 벤처에 대한 총 투자액은 200억달러(약 27조원) 이상이 된다고 밝힘
- 제2공장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임. TSMC는 일본 두 공장에서 자동차와 산업,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용 칩 등에 사용될 12인치 웨이퍼를 월 10만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전망함
- WSJ은 “애플과 엔비디아 등을 고객사로 둔 TSMC의 이번 투자는 과거 반도체 영광을 되찾으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함

(MTN뉴스 2024.2.7) 김이슬 기자

2. 구글, “지금 이 유럽 재생에너지 거래의 적절한 시기”

- 4분기 친환경 전력에 대한 유럽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가격이 2% 하락해 재생에너지 구매자들이 수요 증가에 앞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가격 추적 플랫폼 레벨텐(LevelTen)이 주장했다
- 로이터가 1일(현지시각) 전함
-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자, 구글은 재빨리 행동함
- 구글은 2030년까지 연중무휴 무탄소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700MW 이상의 청정 에너지에 대한 PPA를 새롭게 발표했다고 에디와 ESG투데이가 1일(현지시각) 보도함

(임팩트는 2024.2.5) 홍명표 기자

3. 토탈에너지스, 에어리퀴드, 중장비 트럭을 위한 수소 네트워크 개발 위한 합작회사 출범

- 에너지 회사인 토탈에너지스와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인 에어리퀴드는 유럽 중장비 트럭을 위한 수소 네트워크 개발 가속화를 위해 새로운 합작회사인 ‘TEAL Mobility’ 출범을 발표함
- 향후 10년 동안 100개 이상의 수소 스테이션을 개발해 토탈에너지스 브랜드로 최초의 초국적 유럽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4년부터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등에 20개 스테이션을 운영할 예정임

(ESG투데이 2024.2.1) 수잔 라헤이 기자

4. 도요타, 1.7조원 투입 美 첫 ‘EV거점’ 구축

-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남부 켄터키 공장에서 전기차(EV)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면서 총 13억달러(약 1조7300억원)를 투입함
- 배터리팩부터 차체에 이르는 조립·생산 기능을 한데 모아 미국 최초의 EV 거점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임
- 도요타는 7일 미국 내 주력 현장인 켄터키주 조지타운 공장 설비 개보수에 13억달러(약 1조7300억원)를 투입해 기존의 내연차는 물론 EV도 함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힘

(서울경제 2024.2.7) 송주희 기자

5. 샤프·FDK, 아연 활용한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

- 일본의 주요 기업인 샤프와 FDK가 차세대 배터리 후보 물질로 주목받는 아연을 활용한 혁신적인 배터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4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번 기술 발전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됨
- 샤프는 2025년 시험 가동을 목표로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 배터리와 유사하면서 수명은 약 2배 더 긴 아연-공기 충전식 배터리 개발에 힘쓰고 있음
- FDK는 양극에 수산화 니켈, 음극에 아연을 사용하는 니켈-아연 배터리를 개발하며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안 제시에 앞장서고 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4.2.4) 노정용 기자

1. LG화학, GM과 25조원 규모 '빅딜'... 2035년까지 양극재 공급

- LG화학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2035년까지 양극재를 공급하는 25조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음. LG화학은 7일 GM과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LG화학은 GM에 2035년까지 양극재 50만 이상을 공급함. LG화학은 계약 금액이 24조7492억원이라고 공시함. 양극재 50만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 50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임
- LG화학과 GM은 2022년 7월 양극재 장기 공급을 위해 포괄적 합의를 한 뒤 이번 계약을 통해 공급 물량을 구체화함
- LG화학은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2026년부터 GM에 북미산 양극재를 공급함.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한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양극재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스에서 주로 사용하고, GM의 다른 전기차에도 쓰임

(동아일보 2024.2.7) 홍석호 기자
(뉴스스 2024.2.7) 이다솜 기자

2. 한화, 마이크로소프트 최초 도입 'RSU' 전계열사 확대

- 한화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그레이트 챌린저(Great Challenger)'를 향한 첫 걸음으로 '성과급 제도'부터 손본
- 한화는 '책임경영/주주가치 제고 보상 제도'로 알려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전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힘
-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음
- 다만, 지급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음

(스마트에프엔 2024.2.7) 신종모 기자

3. SK C&C,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으로 EU 제품별 탄소 규제 지원

- SK C&C가 롯데알미늄·조일알미늄과 제품 생산 전반의 종합 탄소 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함
- 이번 사업으로 양사는 제품 생산 과정의 직·간접 탄소 배출원인 Scope(스코프) 1, 2 영역뿐 아니라 원료 공급처인 스코프 3의 탄소 배출량까지 측정 관리하는 업계 최초의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를 확보함
- 양사는 먼저,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의 제품 탄소 배출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탄소 배출량 의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적용함. '탄소발자국'과 '디지털 배터리 여권' 등 EU의 추가 탄소 관리 규제 대응에도 적극 활용함

(이뉴스투데이 2024.2.5) 유은주 기자

4. 삼성물산, 카타르 QEMC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MEP 작업 계약

- 삼성물산이 카타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지 업체와 MEP(기계·전기·배관) 작업 계약을 맺음
- 카타르 엔지니어링 기업 QEMC는 삼성물산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MEP 작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계약 기간은 9개월임
- 발전소 부지 두 곳을 합한 면적은 약 10km²로 축구장 1400개 크기이고,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만 160만 개에 달함. 올해 11월 준공 예정임

(더구루 2024.2.4) 홍성환 기자

5.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美 켄터키 양극박 공장에 獨 SMS 디지털 패키지 도입

- 롯데케미칼과 롯데알미늄의 미국 합작법인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가 양극박 공장 디지털화를 위해 독일 SM그룹과의 협력을 확대함. 제조부터 품질 관리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임
- 4일 SMS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켄터키주 엘리자베스타운시에 들어서는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 공장에 SMS그룹의 물류·생산 디지털화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함. 생산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모두 관리, 제조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맞춤 생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임
-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 생산시설은 미국에 들어서는 첫 양극박 공장임

(더구루 2024.2.4) 정예린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2.2(금) ~ 2024.2.8(목)

제공일시 2024 03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넷제로산업법과 2040년 기후 목표 발표...네 가지 난제 해결해야

(인팩트는 2024.2.7) 송준호 기자

-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넷제로 산업법(NZIA)이 6일(현지시각) 3자 협상에서 잠정 타결됨.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고 공식 채택하면 관보에 게재되고, 빠르면 연말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넷제로 산업법은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과 같은 부문을 전략적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EU 역내에서 해당 산업의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증대함을 목표로 함.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과 경쟁해 승리할 유럽 기업들을 키우겠다는 말임
- EU는 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EU 집행위원회는 전략적 넷제로 기술로 지정된 부문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NZIA는 프로젝트가 소재한 단일 국가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거나 EU의 청정기술 경쟁력을 공급망 차원에서 강화할 수 있다면 법이 제공하는 혜택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함
- 예를 들어, EU가 제시한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프로젝트 허가를 9개월에서 늦어도 18개월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임. 해당 프로젝트가 앞서 언급한 두 기준에 부합한다면 인허가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음. 두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는 공공입찰에서도 15~30%의 가중치를 받는 등 우선권을 가짐
- 넷제로 산업법 협상에서 의회의 입장을 대변한 크리스티안 엘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표에 대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유럽이 처음으로 IRA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4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
- 그러나 엘러의 전망처럼 넷제로 산업법이 IRA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임
- 넘어야 할 벽이 높음. 유럽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전 세계 생산 능력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의 IRA에 포함된 369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녹색 보조금이 유럽 생산업체의 이전을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음. 특히, NZIA는 IRA처럼 새로운 보조금을 마련한 게 아닌 기존의 코로나 회복 기금 등을 조정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냐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